



믿음으로 가득찬 장바구니



「축협 축산물판매장」

우리 입맛에 맞는 축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적당한 가격.
당연한 바램이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축협이 이 일을 맡겠습니다.
축산농민의 기쁜 정성을
도시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에 담는 일—
축협은 작지만 이 소중한 일을 통해 고향과
도시를 연결하는 마음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축협의 「**축산물 시범판매장**」과
전국 회원조합의 「**축산물판매장**」은
우리 축산물의 참맛과 함께
믿음을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축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 / 1993년 8월 10일 발행 / 1996년 6월 13일 발행 (서)라-7 / 우편번호 140-01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199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 (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여성

특집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1993·8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에로부터 내려 온 한방의학 죽염

피부미용에 특히 효과가 좋은 죽염은 살균효과가 있어, 세균성 피부트러블을 예방해줍니다.



죽염의 신비를 비누에 담았습니다.

그 죽염의 신비와 녹두, 보습성분이 들어있는 럭키 죽염비누는 피부 트러블이 없고, 보습효과가 뛰어난 자연성 비누입니다. 럭키 죽염비누로 피부를 가꾸세요.



피부트러블없는 이 깨끗함 - 럭키 죽염비누

럭키 죽염비누



월간 여성

월간여성 8월호
통권310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사회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녀평등/고정명

5 특집/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17 알아두세요
쓰지 않는 물건은 서로 바꾸어 씁시다!

19 해외여성통신
튀니지의 여성정책/최신덕

22 근로여성고발장구 운영보고서
체불임금 사례 늘어나

26 여성학 지상강좌
모성 : 본능인가? 학습인가?/추애주

29 여성계 동향/김효선

30 협의회 소식

31 우리들의 광장

사회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녀 평등



고정명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 법학박사)

무수한 관계속에서 끊임없는 작용 반작용을 거듭해 오는 인간의 역사는 후기 산업사회라는 한 토막위에서 오늘을 또 흘러 보내고 있다.

존엄주체로서의 자기 발전을 꾸준히 시도해 온 역사속의 몸부림들은 신분적 계층의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인간의 참살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뒷걸음이나 치듯 남녀성별의 차등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일상으로 규정되며 공공연히 실천되고 있음에 우리는 염려와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선진문화국가의 예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는 존엄한 개인의 법적지위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하고 제도에 근거한 보호를 받으면서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 여성들은 풀지 않은 새활동안 이의 모색에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요구에 둔감하려는 몸짓을 계속하고 있다. 또 제도화의 요구를 마지 못해 수용하였지만 이의 실천적 하위규범이 마련되지 못하므로 인해 공문에 그치고 마는 사실도 다반사로 있어 왔다.

헌법에서 규정한 성별차등금지에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문명국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차등금지에 대한 내용, 결정 및 한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역시 성의 장벽에 의해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음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을 보고 있다.

이제 남녀의 성별차등은 남녀의 대립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 제고란 측면에서만 아니라 인간해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보다 유연성을 가진 논리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제도에 의한 남녀의 차등은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가 갖는 의식과 실천의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차등일색이던 가족법상의 문제도 이제 상당한 정도로 평등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호주제도의 유지, 동성동본혼 금지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날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된다하더라도 각 개인이 이를 수용치 않는다면 그 갈등은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갈등의 극화는 가정의 파괴로 이어져서 각 개인의 행복의 추구가 기초에서부터 분열되고 마는 결론으로 나타난다.

사법부가 이를 지켜줄 수 없으며 국가가 이의 보상을 책임질수도 없는 것이다.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어떠한가? 이제 더 이상 성에 의한 차등규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룩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용을 둘러싼 차등도 이제 최소한 법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각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여성의 취업제한을 지속하는 현실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모대기업의 회장이 며칠전 임원간담회에서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아울러 그 기업은 이제 성에 의한 입사의 차등이 없음을 공표한 바 있다.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에 기초하여 부부간의 재산권행사, 이혼시의 재산 분할 청구권, 고용의 평등, 승진의 기회균등 규정 등은 당연히 실천하여야 할뿐 아니라 여성스스로가 신뢰받는 인격체로서 행동가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전체가 이러한 흐름을 위한 기반조성에 전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남성과 여성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재인식하면서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거듭 세울 인간 존중에 남과 녀가 아닌 우리로서 관심을 새롭게 모아 보자.

특집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중고생활용품 교환의 활성화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교환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본회는 실태조사에 착수, 결과를 분석했다.

중고 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본회는 지난 7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832명의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과 중고생활용품의
처리실태,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관심도 및 이용실태
등을 알아보고 교환시장에 대한 주부들의 요구사항 및 그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서론

1. 조사의 목적

지구환경문제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와 가장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문제라고 볼
수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특히 제품 수명단축에 따른 대형
생활 폐기물의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
용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결
을마 단계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의
식변화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혜롭게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소비자의식만큼
'어떻게 쓰레기를 재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
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정
도나 행동양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현재 소비자들의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의식과 현재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과 관련한 실태 및 의식 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 알뜰장',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알뜰시장' 및 민간사
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품 정보교환' 등 크게 세가지로 나
누어 진다.

지난 90년 3월 서울시에서 과소비를 자제하고 근검절약
하는 생활습관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시작한 '시민알뜰장'을 중심으로 그간 비교적 활발히 전
개되어오고 있으나([표 1]참조), 이러한 외형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표 1〉 서울시의 시민알뜰장 추진실적('90-'92)

구 분		계	90년	91년	92년
운영회수		973회	189회	368회	416회
물품 접수	건수 (천점)	4,917	1,299	1,854	1,764
	금액 (백만원)	4,276	1,379	1,448	1,449
거래 실적	건수 (천점)	3,476	959	1,323	1,194
	금액 (백만원)	2,857	898	1,011	948

이들은 대부분 상설화되지 않은 '교환시장 개설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참여율 저조 및 거래물품의
편중 등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어왔고, 또한 소비자들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인식부족도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인
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교환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I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1.5%, 30대가 41.5%,
40대가 31.1%, 50대 이상이 15.5%로, 30,40대 주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중졸이하가 11.8%, 고졸이 38.8%
, 대졸이상이 48.7%로, 응답자의 학력이 모집단보다 고
학력에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150만원이 32.1%
로 가장 많고, 150만원~200만원 24.5%, 60만원~100만
원 18.3%, 200만원~300만원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300만원이상의 고소득가구도 6.0% 있었고, 60만원미
만의 저소득가구도 5.0%가 조사되어,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는 아파트 거주자가 49.2%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거주자가 32.5%, 연립주택 및 기타가
17.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취업실태를 보면 취업주부가 35.8%, 비취업
주부가 62.6%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취업주부의 직업유형은 전문직과 판매/서비스
직이 각각 29.2%로 많고 그 다음은 사무직과 자영업이 각각
14.4%였으며, 일반직업직 6.0%, 생산직 4.0%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중 취업주부의 취업형태를 보면 고정직이 63.8%로
많은 한편 시간제 근무(15.8%)와 임시직(10.7%)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크게 4개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남서부지역이 30.3%, 남동부지역이 25.0%, 북서부지
역이 22.7%, 북동부지역이 21.5%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 중고생활용품 처리실태

서울의 주부들은 중고생활용품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
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았다.

서울의 주부들은 28.9%가 자기집에 중고생활용품이 '많
다'고 응답하였으나, '적은 편이다' 46.2%, '거의 없다'
25.0%,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집에 중고생활용품이 '많다(매우+많은 편)'고 응
답한 주부는 50대이상 고연령층(53.5%)에 많고,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41.5%)에 사는 경우가
많아, 주부의 나이가 많은 고연령층세대와 단독주택 거주
세대에서 중고생활용품을 많이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중고생활용품 버린 경험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있 다	684	82.2
없 다	143	17.2
무응답	5	0.6
계	832	100.0

중고생활용품을 버린 적이 있는 주부가 82.2%로, 대부
분의 주부가 중고생활용품을 버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표 3〉 중고생활용품 버린 이유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집안에 보관하기가 불편해서	337	49.3
수리하여 재활용하고 싶어도	132	19.3
수리비가 비싸서	122	17.8
현 것을 남에게 주기가 미안해서	48	7.0
귀찮아서	19	2.8
내가 사용하던 물건을 다른사람이	9	1.3
사용하는 것이 싫어서	9	1.3
워낙 쓸모가 없어서	8	1.2
기 타	8	1.2
무응답	8	1.2
계	684	100.0

타났으며, 이는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월 200만원이상 고소득층(88.7%)과 통상 강남으로 불리는 남동부지역에서 버린 경험있는 주부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9.4%).

중고생활용품 버린 경험이 있는 주부(68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안에 보관하기가 불편해서' 버렸다는 주부가 4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리하여 재 활용하고 싶어도 수리비가 비싸서' 19.3%, '헌 것을 남에게 주기가 미안해서' 17.8%, '귀찮아서' 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주부들 사이에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중고생활용품 버린 경험이 있는 주부(684명)에게 이의 수거를 위해 별도로 환경미화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40.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생활용품 처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단독주택(50.2%)인 경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활용품 처리실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주로 '이웃/친지에게 주거나',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많고, 장농, 침대, 소파 등의 가구도 마찬가지였으며, 의류, 도서, 완구 등 소품들은 특히 대부분 이웃이나 친지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품목별 중고생활용품 처리실태

품목	처리 이웃/친지 에게 준다	중고품교환 시장 이용	다른용도 재 활용	폐기처분	비해당	계
T V	34.6(59.0)	4.6(7.9)	1.9(3.2)	17.5(29.9)	41.3	100.0
냉장고	29.7(49.7)	6.5(10.9)	1.7(2.8)	21.9(36.6)	40.2	100.0
세탁기	20.2(39.1)	5.4(10.4)	0.7(1.4)	25.4(49.1)	48.3	100.0
장 농	15.5(32.6)	5.6(11.8)	3.7(7.8)	22.8(47.9)	52.3	100.0
침 대	15.9(45.2)	5.3(15.1)	1.7(4.8)	12.3(34.9)	64.9	100.0
소 파	21.0(46.2)	6.4(14.1)	2.6(5.7)	15.5(34.1)	54.4	100.0
자동차	7.8(20.9)	22.8(61.1)	-	6.7(18.0)	62.6	100.0
의 류	57.2(71.2)	4.4(5.5)	3.0(3.7)	15.7(19.6)	19.6	100.0
도 서	50.5(75.1)	3.5(5.2)	2.6(3.9)	10.6(15.8)	32.9	100.0
완 구	47.0(73.0)	2.4(3.7)	1.8(2.8)	13.2(20.5)	35.6	100.0

※()안은 해당되는 경우를 100%로 하여 다시 계산한 수치임.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중고품 교환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폐기처분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고생활용품은 대부분 교환시장 이용전에 이웃이나 친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활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실태

1) 관심도 및 인지도

주부들의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이 많다' 12.4%, '관심이 많은 편이다' 40.5%로 2명중 1명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35.3%, '관심이 없다' 11.8%로 나타나, 주부들의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50대이상 고연령층 주부에게서 높고(62.0%), 20대 젊은 주부층에서 낮으며(43.7%), 대졸이상 고학력층 주부에게서 약간 높았다(55.8%).

서울 주부들의 중고시장 인지도는 71.0%로 관심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각 구청별로 매월 운영하는 "시민알뜰장"에 대해서는 59.4%의 주부만이 알고 있어, 아직도 주부 10명중 4명정도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시장 인지도와 "시민알뜰장"인지도도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20대 저연령층 주부들에게서 낮으며, 특히 "시민알뜰장"을 알고 있는 20대주부는 3명중 1명(33.3%)에 불

〈표 5〉 중고시장 및 구청운영 "시민알뜰장" 인지도

구분	중고시장		구청의 "시민알뜰장"	
인지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알고 있다	591	71.0	494	59.4
모른다	240	28.8	335	40.3
무응답	1	0.1	3	0.4
계	832	100.0	832	100.0

과해 이들 저연령층 주부들의 관심도를 높여 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알뜰장"인지도는 지역별로 북서부지역(66.1%)에서 다른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에 관한 정보는 요즘 상행하고 있는 '중고품 매매정보지'(24.6%)와 '지역신문'(22.6%)을 통해 접하는 주부가 'TV'(16.7%), '일간신문'(6.1%)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주부보다 많고, '반상회보' 9.0%, '주위사람' 7.6%, '전단/리플렛/팜플렛/현수막 등 1회성 홍보물' 6.1%, '시청/구청' 2.3%등으로 정보매체가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용실태

알뜰시장, 중고품 매매정보지 등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이용해 본 주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결과,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본 주부는 32.2%, 물품을 출품해 본 주부는 28.8%였으며, 서울의 주부 10명중 4명정도(43.6%)가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통한 물품구매 경험은 40, 50대주부층에서 높고, 저학력층, 저소득층 주부에서 높으며, 교환시장에 물품을 출품한 경험은 40, 50대, 고학력층 주부에서 높아, 현재의 교환시장이 고연령층 주부를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본 경험자(268명)를 대상으로 품목별 이용률 및 이용기관을 알아본 결과 우선 이용율을 보면, 구매물품은 주로 의류(59.3%), 도서(44.8%), 가전제품(37.7%) 등이며, 완구(21.6%)나 가구(30.2%)등은 그 이용률이 낮다. 의류나 도서, 완구의 경우 학교/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알뜰시장, 구청운영 시민알뜰장, 여성단체운영 알뜰시장 등이 주 이용기관이지만, 가구나 가전제품의 경우는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시장이나 정보중개지를 활용하는 주부가 많아, 실제로 중고품 교환시장이 주로 의류나 도서등 일부품목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물건을 출품한 경험이 있는 주부(240명)의 경우도 구매의 경우와 별 차이없이 출품한 물품은 주로 의류(67.5%), 도서(47.9%)가 많고, 이들 품목의 이용기관도 학교/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알뜰시장이 가장 많으며, 가구나 가전제품의 경우 이용률도 낮을 뿐 아니라 이용기관도 주로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품목별 교환방식을 보면, 주요 이용품목인 의류, 도서, 완구의 경우 대부분 '기증'한 것이며, TV, 냉장고, 세탁기

〈표 6〉 구매경험자(N=268)의 품목별 이용기관

(단위 : %, 중복응답)

품목	이용기관	구청운영 시 민 알뜰시장	여성단체 운 영 알뜰시장	일반사업자 운 영 중고시장	정 보 중개지	학교/종교 단체운영 알뜰시장	비이용
가 구		4.1(13.6)	2.6(8.6)	19.0(62.9)	3.4(11.4)	3.0(9.9)	69.8
가전제품		6.7(17.8)	5.6(14.9)	13.1(34.7)	9.7(25.7)	4.9(13.0)	62.3
완 구		4.9(22.7)	3.0(13.9)	0.7(3.2)	5.2(24.1)	9.0(41.7)	78.4
도 서		11.9(26.6)	9.3(20.8)	4.1(9.2)	3.7(8.3)	18.7(41.7)	55.2
의 류		18.7(31.5)	22.0(37.1)	1.5(2.5)	1.5(2.5)	20.5(34.6)	40.7
기 타		3.0(18.3)	2.6(15.9)	3.0(18.3)	1.5(9.1)	7.8(47.6)	83.6

※()안은 품목별 이용자를 전제로 하여 다시 계산한 수치임.

〈표 7〉 출품경험자(N=240)의 품목별 이용기관

(단위: %, 중복응답)

이용기관	구청운영 시 민 알뜰시장	여성단체 운 영 알뜰시장	일반사업자 운 영 중고시장	정 보 중개지	학교/중고 단체운영 알뜰시장	비이용
가 구	2.5(12.5)	2.9(14.5)	10.8(54.0)	2.9(14.5)	1.3(6.5)	80.0
가전제품	4.2(13.8)	6.3(20.7)	7.9(26.0)	7.1(23.4)	5.8(19.1)	69.6
완 구	5.0(15.2)	6.3(19.1)	1.7(5.2)	1.3(4.0)	20.0(60.8)	67.1
도 서	10.4(21.7)	6.7(14.0)	0.4(0.8)	2.9(6.1)	29.2(61.0)	52.1
의 류	13.8(20.4)	21.7(32.1)	2.1(3.1)	0.4(0.6)	36.3(53.8)	32.5
기 타	3.3(23.2)	2.9(20.4)	2.5(17.6)	0.8(5.6)	5.4(38.0)	85.8

※()안은 품목별 이용자를 전체로 하여 다시 계산한 수치임.

〈표 8〉 품목별 교환방법(N=240)

	기 중	물물교환	위탁판매	직접판매	정보중개지 이 용	비해당	계
T V	12.9(49.2)	3.3(12.6)	2.9(11.1)	2.9(9.5)	4.6(17.6)	73.8	100.0
냉장고	7.5(35.9)	1.3(6.2)	4.2(20.1)	2.1(10.0)	5.8(27.8)	79.2	100.0
세탁기	8.8(41.9)	2.5(11.9)	3.8(18.1)	1.7(8.1)	4.2(20.0)	79.2	100.0
장 농	3.3(23.9)	2.5(18.1)	3.8(27.5)	1.3(9.4)	2.9(21.0)	86.3	100.0
침 대	3.3(30.3)	2.1(19.3)	1.7(15.6)	1.7(15.6)	2.1(19.3)	89.2	100.0
소 파	4.6(28.2)	6.3(38.7)	2.5(15.3)	0.4(2.5)	2.5(15.3)	83.8	100.0
자동차	2.5(12.5)	1.3(6.5)	8.3(41.5)	2.5(12.5)	5.4(27.0)	80.0	100.0
의 류	55.0(84.6)	4.2(6.5)	3.3(5.1)	2.1(3.2)	0.4(0.6)	35.0	100.0
도 서	37.1(81.0)	5.4(11.8)	2.5(5.5)	0.4(0.9)	0.4(0.9)	54.2	100.0
완 구	27.1(83.4)	2.9(8.9)	0.8(2.5)	0.4(1.2)	1.3(4.0)	67.5	100.0

※()안은 해당되는 경우를 100%로 하여 다시 계산한 수치임.

등의 가전제품은 '기중'이 많으나 '정보중개지'나 '위탁 판매'도 이용하고 있고, 장농, 침대, 소파 등의 가구는 '위탁판매', '기중', '물물교환', '정보중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환되고 있으며, 자동차는 주로 '위탁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있는 물품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시장을 통해 위탁판매되고 현재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주요 품목은 주로 기중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그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주부들은 대부분 '값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64.9%) 교환시장을

〈표 9〉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비이용 이유

(1)구매이유(N=268)

응 답 항 목	빈도(명)	백분율(%)
값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174	64.9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51	19.0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31	11.6
그단체 회원이라서	2	0.7
호기심으로	2	0.7
무응답	8	3.0
계	268	100.0

(2) 출품이유(N=240)

응 답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버리기가 아까워서	124	51.7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53	22.1
그단체 회원이라서	37	15.4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10	4.2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8	3.3
기 타	2	0.8
무응답	6	2.5
계	268	100.0

(3) 비출품 이유(N=571)

응 답 항 목	빈도(명)	백분율(%)
교환할 물품이 없어서	173	30.3
절차를 몰라서	135	23.6
어떤 것이 필요없는 것인지	84	14.7
평소 의식하지 않고 지내서		
언제 장이 개폐되는지 몰라서	68	11.9
운반이 어려워서	68	11.9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13	2.3
시간이 없어서	6	1.1
그냥, 기증하기가 아까워서	2	0.4
무응답	22	3.9
계	571	100.0

이용하며, '자원절약' (19.0%)이나 '환경운동동참의미' (11.6%)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을 출품하는 주부들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51.7%, '환경운동 동참의미' 22.1% 등으로 그 이유를 지적하여 구매자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 단체 회원이라서' 출품 했다는 주부도 상당수 있어(15.4%) 교환시장이 주로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부들은 그 이유도 '교환할 물품이 없어서' 30.3%, '절차를 몰라서' 23.6%, '어떤 것이 필요없는 것인지 평소 의식하지 않고 지내서' 14.7%, '언제 장이 개폐되는지 몰라서' 11.9% 등을 지적하여, 주로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환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이 이용 부진의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상의 문제는 '운반이 어려워서' (11.9%)가 지적되었다.

4.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평가 및 개선방안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이 생활에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서 서울주부들은 '매우 유용하다' 20.2%, '유용한 편이다' 53.1%로 73.3%가 그 유용성을 인정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21.3%, '유용하지 않다' 4.3%였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교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본 주부와 그렇지 않은 주부가 차이를 보여, 구매 경험자가 그 유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였으나, 교환시장에 물품을 출품해 본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유용성 평가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현재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 6.1%,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 47.0%, '잘 안되고 있다' 41.6%, '전혀 안되고 있다' 2.5%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저학력층에서 더 긍정적인 반면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표 10〉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불만사항

응 답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알뜰시장이 언제, 어디서 개폐되는지 잘 모르겠다	267	32.1
중고생활용품을 내놓고 싶어도 그 절차를 잘 모르겠다	232	27.9
개폐장소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158	19.0
개폐횟수가 너무 적다	62	7.5
거래물품이 제한되어 있다	58	7.0
기 타	12	1.4
무응답	43	5.2
계	832	100.0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불만사항은 '알뜰시장이 언제, 어디서 개폐되는지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고(32.1%), 그 다음은 '중고생활용품

내놓고 싶어도 그 절차를 모르겠다' 27.9%, '개최장소나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19.0%, '개최횟수가 너무 적다' 7.5%, '거래물품이 제한되어 있다' 7.0% 등으로, 주로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었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불만사항의 지적내용은 교환시장 이용경험자와 비경험자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비이용자는 특히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관한 정보부족을 많이 지적하였고, 이용경험자는 운영상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으며, '개최장소나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다'는 상설화문제는 그 지적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활성화 방안(중복응답)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재활용 의식수준 향상	378	45.4
TV,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강화	360	43.3
차량으로 물품수거	260	31.3
물건값을 적절히 산정	143	17.2
거래물품의 다양화	139	16.7
판매방식의 다양화	120	14.4
출품절차의 간소화	118	14.2
동반 프로그램의 다양화	48	5.8
기타	2	0.3
무응답	4	0.5
계	832	100.0

그렇다면, 주부들은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주부들은 무엇보다도 '재활용 의식수준의 향상'(45.4%)과 'TV,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강화'(43.3%)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차량으로 물품수거'(31.3%)도 많이 지적하였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여기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이다. 중고생활용품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상설화'(30.0%)와 '차량의 물품수거'(26.2%)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매스컴을 통한 홍보강화'(17.2%)도 많이 지적하고 있다.

〈표 12〉 중고생활용품 출품활성화 방안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상설화	250	30.0
차량으로 물품수거	218	26.2
매스컴을 통한 홍보강화	143	17.2
교환방식의 다양화	75	9.0
적절한 물건값 산정	69	8.3
출품절차의 간소화	62	7.5
기타	6	0.8
무응답	9	1.1
계	832	100.0

앞의 두결과를 볼 때 현재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한 재활용 의식수준 향상 및 정보제공과 다양한 물품수거방법 개발을 통한 참여율 제고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환방식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위탁판매	472	56.7
물물교환	148	17.8
정보중개방식	94	11.3
기증판매	79	9.5
직접판매	29	3.5
기타	2	0.2
무응답	8	1.0
계	832	100.0

주부들은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환방식으로 '위탁판매'를 가장 선호하였으며(56.7%), '물물교환' 17.8%, '정보중개방식' 11.3%, '기증판매' 9.5%, '직접판매' 3.5%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운영시 동반프로그램으로는 '고쳐쓰기 센터'(51.0%), '농산물직거래'(50.8%), '재생활용품 판매센터'(43.8%) 등이 고르게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고상품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신상품 판매'(26.2%)는 상대적으로 그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부들은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상설화에 대해 82.7%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

우처럼 이를 상설화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설화에 대해서는 고학력층일수록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부가 많았다.

한편,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주부(78.0%)보다는 구매경험이 없는 주부(84.7%)에게서 '상설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높아, 비상설화가 이들이 구매를 하지않는 이유중의 하나임을 시사해 준다.

〈표 14〉 상설화 주도기관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지방자치단체	328	39.4
민간단체	169	20.3
종교단체 및 학교	89	10.7
민간사업자	33	4.0
어느 기관이든 상관없다	203	24.4
무응답	10	1.2
계	832	100.0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상설화할 경우 그 주도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호하는 주부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간단체' 20.3%, '종교단체 및 학교' 10.7%, '민간사업자' 4.0%의 순이었으며, '어느 기관이든 상관없다'는 주부도 24.4% 있었다.

〈표 15〉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바라는 사항(자유응답)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홍보 강화	45	5.4
가까운 지역에 상설화했으면	33	4.0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면	21	2.5
차량으로 물품수거 했으면	19	2.3
거래물품이 다양했으면	15	1.8
가격이 저렴했으면	9	1.1
직장인을 위해 오후시간 개방	8	1.0
물건 출품 및 구매를 유선으로	6	0.7
물건을 팝플렛, 사진으로 보았으면	3	0.4
기타	6	0.7
모름/무응답	667	80.2
계	832	100.0

주부들에게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바라는 사항을 자유롭게 응답하게 한 결과 이미 다른 문항에서 많이 지적된 '홍보 강화'와 '상설화', '차량으로 물품수거' 등의 요구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외에 물건에 대한 요구사항과 개장시간, 이용방법의 용이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적되었다.

5.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제도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제도에 대해 알고있는 주부가 57.6%, 모르고 있는 주부가 40.7%였으며, 20대(35.4%)와 50대이상(47.3%) 주부층에서 인지도가 낮고 30대(65.2%), 40대(60.6%)주부층에서 인지도가 높았으며, 아파트거주 주부(66.3%)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수수료 부과제도 찬반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찬성	502	60.3
반대	182	21.9
모르겠다	148	17.8
계	832	100.0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를 알아본 결과, 이에 찬성하는 주부가 60.3%, 반대하는 주부가 21.9%로 찬성하는 주부가 많았다.

수수료 부과금액을 몇가지 예들들어 알려주고 이 부과금액 수준에 대해 물은 결과는 '비싸다' 48.9%, '적당하다' 34.6%, '싸다' 3.7%로 주부 2명중 1명은 비싸다고 응답하였다.

수수료 부과금액이 비싸다는 견해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수료 부과제도에 찬성하는 주부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46.2%), 반대하는 주부는 '비싸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78.0%).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제도가 중고품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74.3%의 주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2.1%, '도움이 안될 것이다' 12.7%로 4명중 1명정도의 주부는 그 역할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부과제도가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제도에 찬성하는 주부층에서 높고, 반대하는 주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표 17〉 수수료 부과제도 시행후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의향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많이 이용하였다	129	15.5
가끔 이용하겠다	531	63.8
이용하지 않겠다	40	4.8
모르겠다	132	15.9
계	832	100.0

실제로 처리수수료 부과제도 시행이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에 기여할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묻은 결과, '매우 많이 이용하겠다' 15.5%, '가끔 이용하겠다' 63.8%로 응답하여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많이 이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이용의향은 중졸이하 저학력층 주부(20.4%)가 비교적 높고,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서의 구매경험자(25.4%)가 높았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중고생활용품의 처리실태,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관심도 및 이용실태 등을 알아보고, 교환시장에 대한 주부들의 요구사항 및 그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부들은 자기집에 중고생활용품이 별로 많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에 보관하기 불편하거나 재활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버린 경험이 많아, 주부들의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의류, 도서, 완구 등은 이웃이나 친지에게 주어 교환시장 이용전에 비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에 대한 잠재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중고시장에 대한 인지도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민알뜰장'에

대한 인지도보다 더 낮아 인지가 참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으며, 중고생활용품 교환에 대한 정보는 주로 정보공개지의 지역신문이나 1회성 홍보물, 반상회보 등에 의존하고 있어 홍보효과가 큰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주부들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실태를 보면, 교환시장에서의 구매경험자가 32%, 출품경험자가 29% 정도였으며, 구매와 출품을 모두 경험한 정확한 의미의 교환경험자는 17%에 그치고 이제까지 구매나 출품중 어느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주부가 53%로 나타났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통해 이용하는 품목은 주로 의류, 도서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이용기관도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이 많고,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품목은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시장 이용율이 높아, 아직도 주부들은 자신에게는 불용품이지만 교환시장에 내놓고 싶지 않거나 그 절차가 힘들고,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제품의 경우 교환시장 활용이 안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재의 교환시장에서 활용되는 교환방식이 대부분 기증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한계를 갖게하는 한 요인으로 보인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활용에 이처럼 한계가 있는 것은 주부들이 교환시장을 이용하는 이유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구매이용자의 대부분은 단지 '값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교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출품경험자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환경운동 동참 의미', '그 단체 회원이라서' 등으로 교환시장의 재활용운동이 주로 출품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환시장이라는 것은 서로 물건을 내놓고 바꿔가면서 재활용의 의미를 찾는 것인데, 내놓는 사람 따로, 사는 사람 따로이면서 그 의미도 서로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환시장 비이용자들은 그 이유로 '교환할 물품이 없어서', '절차를 몰라서', '어떤 것이 필요없는 것인지 평소 의식하지 않고 지내서', '언제 장이 개최되는지 몰라서' 등을 지적하여 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부족과 교환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이 이용부진의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은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73%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구매경험자중에 유

용하다는 사람이 많아 이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반반정도로 엇갈리고 있다.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시장에 대한 불만 사항은 알뜰시장 개최에 대한 정보나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이 가장 많고, 장소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첫수제한, 물품제한 등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교환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고생활용품 활성화 방안은 '재활용 의식수준 향상', '메스컴을 통한 홍보강화', '차량으로 물품수거' 등이며, 소비자들이 교환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놓게 하는 방안으로는 '교환시장의 상설화'와 '차량으로 물품수거', '메스컴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지적하여, 결국 출품의 활성화가 교환시장 활성화의 관건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한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 및 교환에 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물품수거 방법 개발을 통한 참여율 제고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교환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부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환방식은 위탁판매방식이며, 동반프로그램으로는 '고쳐쓰기', '농산물 직거래', '재생활용품 판매센터' 등이 고르게

선호되고 있어, 주로 환경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동반될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현재의 '교환시장 개설방식'을 '상설교환전시장 개설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부들은 83%가 상설화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주도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재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소비자들의 재활용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중고생활용품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도 낮을 뿐 아니라 교환시장을 단순히 값싼 물건을 사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주부가 많고, 특히 20대 젊은 주부층에서 이러한 인식부족이 더 심한 점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둘째,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알뜰시장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낮으며, 참여동기도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참여율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수준이 낮아서 기인하겠으나 대부분의 주부가 알뜰시장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참여하기에는 현재의 방식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셋째, 거래물품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실태에서 잘 나타나듯이 거래물품이 의류나 도서, 완구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었고, 약간의 고가품이나 대형물품은 여러가지 이유로 교환시장을 통해 재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현재의 교환시장 운영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의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환시장 운영방식자체를 바꾸어 상실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우선, 현재의 교환시장 운영방식 내에서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보다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는 소비자들의 재활용 의식수준 향상 및 이로 인한 참여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좁게는 교환시장 자체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부터 크게는 환경운동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현재의 교환시장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날에 개최한다면 당장은 상실화가 어렵더라도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서울시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 '시민알뜰장'의 경우 날짜와 장소를 거의 일정하게 정해서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행사를 함께 개최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환경문제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면 소비자 의식교육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로 기증방식에 의존하는 현행 교환시장에서는 참여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재활용 제품 교환권을 준다는가 하는 포인트 제도등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래물품을 좀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전시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불편한 대형 중고품의 경우 사진등을 첨부한 목록카드를 만들어 정보게시판 등을 활용해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결국 상실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일본 등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상설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참여율도 대단하여, 우리나라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 재활용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데 이러한 교환시장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특히 소비자들과 직접 관련되는 쓰레기 문제가 여러가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안내

여성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본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전국여성대회가 올해로 제3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전국여성대회는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인 1994년을 앞두고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보기 위해 주제를 「2000년대의 가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가정의 역할도 변하고

가족간의 관계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신한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건전한 가정생활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에 적극 참여 하셔서 우리 여성의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일 시 : 1993년 9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20분

- 장 소 : 류관순 기념관(이화여고 내)
- 주 제 : 2000년대의 가정
- 등록비 : 1인당 1만원
- 등록처 : 본회 대회등록부
TEL : 02-793-5196
- 등록비 송부처 : 농협중앙회 한강로지점
067-01-00160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참가자 명단 제출 및 등록 마감일 : 9월 17일

▶ 알아두세요

쓰지않는 물건은 서로 바꾸어 씹시다!

자료제공: 서울시

자기에겐 필요없는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것은 미덕이다. 또,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미덕이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알뜰시장과 알뜰주부 재활용품 전시관을 운영하여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

알뜰주부 재활용품 전시관

전시개요

- 위치 :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역구내
- 규모 : 연면적 182.5㎡(55평)
- 내용
 - 환경보전,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등 홍보자료 전시
 - 생활속의 재활용사례(생활공예, 생활용품) 소개
 - 국내외 재활용 상품전시

- 환경, 재활용 관련도서 전시
- 분리수거, 재활용 관련기기 및 재활용품전시
- 올바른 분리수거 요령안내
- 환경마크획득 상품 전시
- 재생제품 탄생과정 및 재생원료 전시
- VTR상영등 시청각 자료 전시
- 재활용품과 재생상품 교환
- 계절별 월별 특별행사 실시

개관시간

매일 오전 10:00~오후 7:00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

안내전화

전화 : 755-8144(전시관)
731-6486(서울시부녀복지과)



주간생활정보 신문 이용

□버락 시장

지 역	전화번호	비고
대표	032)-612-7771	
서대문, 은평, 종로관	325-4586	
성북, 도봉, 노원관	945-0656	
성동, 동대문, 중랑관	458-5451	
관악, 동작관	837-3838	
강동, 송파관	443-3233	
영등포, 양천, 강서관	831-2091	
강남, 서초관	578-5011	
구로관	838-3838	

※신문 게재 요령(중고용품)

◦ 게재내용

중고품 교환 및 구매

◦ 구매가격 및 매각 희망가격 제시

◦ 게재비용

-매각 희망가격 10만원 이상 : 한줄당 3,000원

-매각 희망가격 10만원 이하 : 무료

◦ 접수 요령

-매주 화요일 마감→금요일 발행

-거주지별 접수

□그 외 가로수, 교차로, 자린고비 등의 생활정보지 이용

알뜰시장

시민 알뜰시장 정기개장 일정

구 별	연락처	일 시	장 소	비 고
종 로	731-0491	매월 첫주 목요일	사직 공원	
중 구	260-1491	매월 27일	장충단 공원	
용 산	710-3491	매월 첫주 화요일	동별 개장	
성 동	450-1491	매월 27일	지역 순회	
동대문	925-2783	매월 28일	정릉천 하천공원	
중 랑	490-3491	매월 28일	중화2동 태능시장앞 놀이터	
성 북	925-5163	매월 28일	정릉2동 송덕국교 앞	
도 봉	901-5491	매월 세째주 목요일	수요2동 새마을 회관	
노 원	950-3491	매월 10일	구민회관 앞 근린공원	
은 평	350-1491	매월 마지막 화요일	구청 광장	
서대문	330-1491	매월 27일	지역 순회	
마 포	330-2491	매월 마지막 목요일	구청 광장	
양 천	640-3491	매월 마지막 목요일	신정동 목 4공원	
강 서	600-6491	매월 27일	화곡본동 어린이놀이터	
구 로	860-2445	매월 27일	구민회관	
영등포	670-3491	매월 28일	당산 공원	
동 작	810-1491	매월 마지막 목요일	구청 광장	
관 악	880-3491	매월 27일	지역 순회	
서 초	570-6491	매월 27일	구청 앞	
강 남	510-1491	매월 27일	개포 5공원	
송 파	410-3491	매월 둘째주, 마지막주 화요일	동별 개장	
강 동	480-1491	매월 5일	구민 회관	

▶ 해외여성통신

튀니지의 여성정책

최신덕 (정부장관 제2실 서기관)

1956년 튀니지의 독립과 함께 제일 먼저 공포된 법률인 신분법은 전통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남녀불평등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지위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튀니지는 북부 아프리카 중앙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써 인구는 791만명, 면적은 한반도의 3/4에 해당하는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이다.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생활의 기본은 종교적 이념이 강하게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 튀니지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기원전에 고대도시국가로 성립되어 B.C 145년에 멸망한 카르타고의 땅이다. 고대에 로마와 싸워 승리하였던 용장 하니발 못지 않게 카르타고의 여인들은 포에니 전쟁때나 또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 매우 애국적 활동을 하였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튀니지는 북부 아프리카 마그레브지역에서는 여성지위가 가장 신장한 나라로 꼽힌다. 지리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있지만 여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차별관행이 과거에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독립이후 짧은 기간동안 튀니지는 괄목할만한 여성발전이 있었으므로 우선 일반현황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겠다.

일반현황

여성인구는 1989년 현재 386만명으로 전인구의 49.3%이다.

우선 여성의 문맹율은 1989년 현재 48.3%인데 이는 독립당시 84.7%에 비하면 매우 개선된 것이다. 반면에 농촌지역의 여성문맹율은 66.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진로는 매우 진취적이다. 기술분야 21% 사회과학 32.7% 의학 51.7% 법률 38.9%의 여학생 비율로 향후 튀니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1990년 현재 72세로 남성의 69세보다 3세가 높다. 평균 자녀수는 1989년 현재 3.45명인데 1975년 7.4명에 비하면 절반이하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성사망율은 1990년 현재 병원에서 분만시 만명당 3명이다. 1989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중 여성인구는 20.9%로 1966년 6%에 비하여 증가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교해볼 때 높은 수

준은 아니다. 취업구조는 농업 42%, 공업 35% 기타분야에 22.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튀니지 여성이 민주시민으로서 남성과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중에서 법률적 측면과 정부내 기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적 지위

1956년 튀니지의 독립과 함께 제일 먼저 공포된 법률인 신분법은 전통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남녀불평등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지위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이슬람문화에서 통용되던 일부 다처제의 철폐를 들 수 있다.

신분법 제18조에 의거 일부다처는 벌금이나 5~7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아울러 강제적인 혼인도 금지하고 있어 아버지가 딸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지고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혼인성립

의 최저연령도 동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데 남성은 20세, 여성은 17세가 되어야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다. 법적혼인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판사의 허가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된다. 이혼은 과거에 혼인중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권을 행사하였고 관내 종교지도자로부터의 확인만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가 공통으로 이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있어서도 판사가 조정을 한 이후에 한법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망시에 어머니가 미성년자녀의 보호권을 갖게 된 것도 비로서 신분법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기혼여성이 친정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때 외손자녀들에게 재산상속을 명시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법이 과거에 비하여 여성지위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 현재 개정작업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인 딸의 혼인을

위한 어머니의 동의, 자녀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 특히 이혼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후견권, 부부간의 폭력금지, "생계수당지불보증금" 창설등이며 이 법이 개정되면 여성은 혼인이나 취업이 이루어질때까지 본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형법상 여성의 지위는 우선 간통죄에서 제일 먼저 알 수가 있다. 1968년 개정된 형법에 의하여 간통은 범죄이며 남편이나 처의 경우 똑같이 유죄로 인정되어 5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게 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이나 처가 간통한 상대방도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개정이전의 형법은 다만 간통한 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선고할 수 있었고 남편은 간통한 처를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반면 처는 남편이 간통을 하여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간통죄에 있어 법률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형법상 강간은 매우 엄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985년 이후부터 폭력이나 무기를 소지한 경우, 피해자가 10세미만인 경우 성폭력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으며 그외 모든 강간범은 중노동에 처하고 있다. 한편 인공임신중절은 1965년부터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다. 당시에는 3자녀 이상인 부부, 임부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선천적 기형이나 심한 질병으로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 임신 3개월이내에 가능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은 허가된 병원의 의사의 시술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남편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1973년에 생존하는 자녀수에 따른 조건은 폐지되었다. 피임약제와 기구의 수입·판매도 1962년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을 주관하는 국립가족연구소가 1973년 창설하였고 아랍국가중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제일 먼저 채택하게 되었다.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은 국가의 인구정책사업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지위향상과도 관련이 밀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공무원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 의한 여성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여성공직자는 2개월간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에 또다시 1~4개월의 산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절반만 지급되나 승진, 정년퇴직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부양자녀중 장애아가 있거나 15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15년간의 근무만으로서 조기 정년퇴

직권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남편의 사망시 처는 남편의 연금의 75%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사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30일이며 의료증명에 의해서만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산 1년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을 갖게 되며 노동법상 여성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설치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여성문제 전담기구와 공직진출

행정부내 여성문제전담기구 설치는 최근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1992년에 여성·가정문제부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었다. 주요기능은 여성발전과 가정문제를 다루며 궁극적 목표는 국가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입법, 사업계획수립과 수행을 하며 정부와 민간부분의 여성사업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체적 추진업무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 헌법이 정한 각종 기구에 여성의 대표성확대, 여성차별 철폐, 여학생의 학업중퇴예방, 문맹퇴치등을 들 수 있다. 1989년부터 사회개발장관도 여성문제를 전담하게 되었고 1992년에는 여성이 대통령보좌관으로 임명되었고 장관급에도 6명의 여성이 임명되었다. 국가최고위급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위원회에 여성진출은 11%이다. 입법부에는 4.26%의 여성의원만이 있지만 제2부의장은 여성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여성의 진출이라고 하겠다. 1980년대에 시작

행정부내 여성문제전담기구 설치는 최근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1992년에 여성·가정문제부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었다. 주요기능은 여성발전과 가정문제를 다루며 궁극적 목표는 국가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입법, 사업계획수립과 수행을 하며 정부와 민간부분의 여성사업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된 지방자치제에 여성지방의회 의원이 1990년 현재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에 있어 여성은 1989년 현재 21%를 차지한다. 그중 교육직이 33% 보건관련직종이 4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의 여성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한다. 사법부는 여성법관이 13.15%나 되는데 이는 1968년 여성법관이 하나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진출이 아닐 수 없다.

정당에 있어서도 집권당인 민주현법연맹은 다른당과 달리 여성참여를 20%까지 늘렸다.

뛰어난 여성에게 차도르가 필수품이었던 시대는 지났다. 1956년 독립과 더불어 신분법이 공포된 8월 13일을 "여성의 날"로 정한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여성의 문명, 모자보건을 포함한 가족계획실천, 여성의 취업확대는 여성문제가 여성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국가발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저변층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1991년 "여성과 개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제8차 개발계획(1992-96)에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제8차개발계획중인 1994년에 실시될 대선과 총선을 계기로 선거에서 뛰어나 여성들은 역량발휘와 함께 여성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체불임금 사례 늘어나

(1993.1.1~7.30 한국여협 근로여성상담부 제공)

경기 침체에 따른 잇단 기업도산으로 체불임금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93년 4월19일 현재 임금체불액은 7백79억 9천1백만원으로 1백88개사 4만8천2백7명의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체불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백32%나 증가한 것이다.

I. 서언

여성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직장 내에서의 성 불평등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에 근로여성의 신분과 역할을 해온 근로여성고발창구가 개설 7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근로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면서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시각도 차츰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48%를 차지하는 여성이 직장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아직도 심각한 성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고위직, 관리직에의 여성 진출이 미미하며 임금격차도 여전히 남자보다 손쉽게 해고되며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단순 반복직에 여성이 많이 고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찾고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993년 1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회 근로여성고발창구에 접수된 고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



불이 21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내 폭행 11건(18.6%) 부당해고 8건(13.6%) 부당대우 6건(10.2%) 결혼·임신후 퇴직종용 4건(6.8%) 순이었다. 이밖에 기타가 9건(15.3%) 접수되었고 총 고발건수는 59건이었다.

II. 유형별 고발사례

1. 임금체불

사례1) 출판사 직원모집 광고(사무직)를 보고 입사한 상담인은 사무직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 교육을 받았다. 불만은 있었으나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참고 근무하던중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속임수, 강매를 일삼는 판매 방식에 회의를 느껴 사표를 내자, 회사측은 그동안 상담인이 팔았던 물건 중에 해약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150만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93. 7. 23)

사례2)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상담인은 노동부에 고소했다. 조정에 실패하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측은 밀린 월급을 우선 받는다는 조건하에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한다.(93. 6. 30)

사례3)상담인의 2개월치 월급이 체불된 것을 비롯해서 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이 체불된 상태다. 본인은 역수가 작지만 오래 근무한 직장동료는 생계가 곤란한 상태이다.(93. 6. 9)

-경기침체에 따른 잇단 기업도산으로 체불임금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93년 4월 19일 현재 임금체불액은 7백79억9천1

백만원으로 1백88개사 4만8천2백7명의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체불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백32%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례3)과 같이 기업의 도산으로 전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고 사용주가 노동부의 지급 명령을 이행치 않거나 사례2)와 같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민



사소송을 해야 한다. 특히, 사례3)과 같이 체불규모가 클 경우에는 사용주의 재산도파를 막기위해 사용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등의 보전절차가 필요하다.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통상 민사소송절차가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크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1심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특별한 소송절차이다. 현행법상 소액사

건심판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민사사건으로서 소송물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다.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은 법원 소액제에 가서 인쇄된 소장서식용지를 무료로 얻어 해당사항을 기입하면 되고 법원직원에 의해서 무료대서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에 의한 제소이

외에 구술제소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소송제기에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청구비용×5/1000+320원)와 송달료(5,500×당사자수)에 불과하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소장접수후 보통14일이내)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는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보통재판과는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원고와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호주가 대리하여 소송할 수 있다. 재판은 가능한한 단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가 재판에 두번 불출석하면 소송은 끝난다.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는데 당사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어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2. 직장내 폭행

사례4)89년 입사한 상담인은 사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사장이 오히려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상담인 명의의 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금액이 현재 800만원 정도가 된다.(93. 6. 25)

사례5)모 여고 야간부에서 무용교사로 10년째 재직중인 상담인은 93년 2월자로 야간부가 폐교됨에 따라 93년 1월 28일자로 중학교 체육교사발령을 받았으나, 2월 8일 갑자기 사표를 내라는 얘길 듣고 퇴직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고등학교 주간의 가정·가사과목을 맡게 됐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고의적으로 상담인을 따돌리면서 퇴직을 종용하던 차에 수업시간에 실습한 음식을 동료교사들에게 대접한 것이 공금유용이라 하며 이유서를 쓰라고해서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동료 체육교사로부터 구타를 당해 2주 진단을 받았다.(93. 6. 1)

사례6)S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는

처방문제로 인턴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갑자기 인턴이 목을 졸라 목에서 피가나는 상처를 입었다.

고소할 생각은 없어 진단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동료간호사들이 문제의 인턴 해고를 요구하고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자 인턴들은 피해 간호사도 같이 해고시켜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93. 5. 18)

— 직장내 폭행은 언어폭행, 물리적 폭행, 성적 폭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93년 상반기에는 직장내 폭행이 고발 건수 중 2위를 차지하여 직장내 여직원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직장내 여직원 폭행의 근원은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구조에서 비롯된다. 남성우월주의적인 의식과 여성을 단지 성적 희롱대상으로만 여기는 남존여비적인 사고에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남성들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분출의 대상으로 같은 직장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자행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남성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직장내에서건 사회적으로건 취해지지 않으므로써 아내구타 등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여직원 폭행은 계속 재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내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성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도화 되어 근무지에서 근무시간내에 자행되는 폭행은 법이나 사규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어야 하며, 취업여성들은 자신의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조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례5)의 여선생님은 끈질긴 항의와 설득으로 직원회의 때 가해 남선생님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아내고, 여건

이 되대로 체육교사로 발령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아냈다.

3. 부당해고

사례7)상담인은 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이유는 '동료직원의 근로의욕을 해친다'는 것이다. 사규에 출근시간을 9시15분으로 규정하였지만 8시30분까지 출근하는 것이 정례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이를 따르는데 상담인만 이를 어기고 정시에 출근한 것이 상사의 눈에 거슬려서 면직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담인의 회사는 면직처분한지 3개월이 지나도 복직되지 않으면 자동해고가 되는데 3월 7일자로 그 시효가 만료되었다. 사규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를 징계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자신의 행위가 면직이나 해고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상담인의 주장이다. (93. 3. 8)

사례8)모 병원에 근무중인 상담인은 병원내에 비리가 산재하여 이를 항의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 병원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차트를 변경하여 하루 3번 투여해야 할 환자에게 1~2번 투여하는 등 변칙의료행위로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사례9)수습기간중인 상담인은 갑자기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다. 성실하게 근무하던 상담인은 본인이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93. 5. 4)

— 위사례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무효확인소송을 하도록 권유했다. 특히 사례9)와

같이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수습기간중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는 93년 3월 13일 김순철씨가 (주)대양도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회사쪽에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두고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수급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부당대우

사례10)모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재직중인 상담인은 회사측이 감량경영조치의 일환으로 봄철프로개편과 동시에 1천여명을 감원한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하던 중 5월 1일자로 본인을 지방발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은 10년간 인사이동이 없었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국의 인원보충과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 인사발령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지방발령자 8명은 모두 여직원으로서 그것도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무연고자였다. 인사발령의 대상이 된 아나운서들의 대부분이 개편된 새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결정돼 일주일 동안 예고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려졌고 첫방송분 녹음까지 마친 상태였다. 상담인은 회사측의 이 같은 인사발령이 여자아나운서의 고령화를 막으려는 의도적인 조치라며 후배 아나운서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

지 않도록 법적대응등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3. 4. 30)

— 위 방송국의 여자아나운서 일당은 아나운서실장에게 항의 공문을 전달하고 종속 불평등 인사발령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행동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무연고 발령자 8명 중 2명은 퇴사하고 나머지 6명은 1년후 다시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발령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5. 기타

기타 유형에는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문의가 있어(2건) 이를 소개해 본다.

사례11)공원안에서 대표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임금전표를 가지고 가던중 상담인을 태우러 오던 셔틀버스에 치어 전치 6주의 사고를 당했다.

뇌를 다쳐 치료비가 많이 들었는데 회사측은 산업재해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

—근무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를 산업재해지정병원으로 우송한다. 요양기간이 3일이내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사업주 부담)을 받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법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는 병원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치료비)와 재해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그리고 재해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있다. 요양급여는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인적사항, 사고경위, 목격자 등을 기재하고 회사확인과 재해자 날인을 하여 회사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 보상과에 제출한다. 휴업급여는 요양개

시 1개월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 및 병원 확인후 제출한다.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하여 병원 및 회사 확인후 제출하면 노동사무소에서 장해심사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청구서 작성 후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기타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확인 후 제출한다. 만약 요양을 승인하지 않거나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산재심사관→산재심사위원회→고등법원→대법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성 : 본능인가? 학습인가?

추애주 (연세대 여성학강사)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모성 본능이 있다라는 인식은 남성으로 하여금 부담없이 여성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남녀관계의 기반은 모자관계의 연장이 된다.



31세의 중학교 교사인 L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버렸다. 평소에도 L씨는 학교일이 많아 시어머니가 파출부의 도움을 받아 가사를 관리하던 형편이었다. L씨의 생각에는 자기가 없어도 생활에서 오는 불편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출이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해결의 방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평소에 시어머니가 잘 보살피 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도 되지 않았다. 단지 가족과의 일시적인 격리를 통해서 당장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가출한지 며칠이 지나자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간접적인 비난의 화살이 날라왔다. 그 핵심은 모성도 없는 여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갈 수 있는 냉정한 여자,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여자 등등이었다.

38세의 C씨는 15년 동안 몇번의 자연유산 이후 외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 임신을 포기한 여성이다. C씨 자신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마치 C씨가 큰 죄인인 것처럼 또는 뭔가 결핍이 된 기형적인 여성으로 취급한다. 항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얘기를 못내는 여성, 자식이 없는 여성이며 자신이 주변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의 대상임을 항상 느끼고 있다.

위의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모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성이 여성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어떤 조건, 어떤 형태 이든간에 여성이 모성과업에서 벗어

나면 가족, 친지,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이나 압력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생물학과 관련이 있는 모성본능이 있다고 보는 관점 때문이다. 여성은 누구나 임신, 출산, 양육의 전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인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기능론적으로 여성, 남성, 사회가 함께 최대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믿음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성을 학습으로 보는 학자들의 생각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John Watson은 인간의 모성이 본능이나, 학습이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최초의 심리학자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모성을 본능으로 보기에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고 또 모든 여성이 다 어머니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첫애기를 가진 젊은 어머니를 관찰하였는데 아이를 다루는 모습이 몹시 서투른 것을 보고 모성행위에는 실제적으로 유전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어린이 양육사를 5년간 연구한 Lloyd Demause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모성도 본능이라는 생물학적인 요인을 찾으려는 보수주의 생태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생물학적 이론들은 여성의 비모성적 행위로 다루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영아 살해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보통이었으며 강둑, 늪에서 영아의 시체를 쉽게 볼 수 있었고, 1527년에 한 사제는 그들이 사용하던 변소가 그속에 던져진 영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는 것을 시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많은 부족에서는 영아 살해가 인구 조절의 흔한 방법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살해하고 있으며, 어린이 학대는 제외하고도, 원하지않는 아이들은 여전히 살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성이 본능이나, 학습이나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어느쪽이든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모성을 본능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사회에서는 모성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첫째, 대부분의 가부장제적 사회의 결혼은 남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남성은 수입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외부세계와 가정이라는 두 영역을 오가며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여성은 자녀양육,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가정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보급자리로 만드는데 전념하며, 그들이 외부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보살피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경우의 여성의 삶은 가정에만 국한된다. 모성이 기반이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족이외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일탈자, 비정상적인 여자, 팔자 나쁜 여자 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진다. 모든 사회구조가 이런 시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한 여성의 남편이 불충분한 수입자, 또는 부재의 경우에는 이 여성은 고통, 좌절감, 무력감을 경험해야만 한다. A. Rich는 여성의 삶의 형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성을 일종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녀는 모성을 경험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는 임신, 출산, 양육과정등의 경험으로 보고 후자는 모성의 잠재성에 대한 규정으로 모든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주장한다. Rich는 모성의 경험에 내포된 풍부한 창조성과 기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측면은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온갖 재능을 다 가진 여성이 마땅한 부양자가 없어 아이와 함께 직접 생계에 부딪쳐야 할 경우 이 여성의 삶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 표면에는 모성에서 연유되는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정감어린 추억이나, 어머니의 자비로운 손길, 따뜻한 보살핌, 부드러운 미소등은 인간의 가슴에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 자신인 여성의 삶은 공적인 영역에서 갇혀나가지 않으며 정치적, 법적, 경

계적 측면에서 통제될 수 있는 삶의 실체와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모성이 권력구조와 잘 결탁이 되어 여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남성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Rich의 결론은 모성제도가 파괴되어야만 여성도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삶의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경험이 남성의 것과는 달리, 개인의 보급자리가 아닌 갈등과 억압의 장소가 되는 경우에도,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보다 개인 수준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 이것은 가정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모성이 실현되기위한 장소이므로 여성이 가정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인간적인 문제는 잘 고려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여성을 모성적 존재로만 파악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정체감에 분열을 가져오게 한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남성이 법적, 경제적, 성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지배의 자리에 있으므로, 종속적이다.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여성의 고립은 여성을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만든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회는 여성을 열등한자, 약자, 보호대상자로서의 자기인식을 강요한다. 반면에, 어머니 역할수행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강인함, 인내심, 자율성, 합리성등의 인간적인 능력이 다. 여성으로서의 자기인식과 어머니 역할수행자로서의 자기인식 사이의

거리감은 여성을 아이와 어른의 수준을 동시에 지닌 모순되는 존재로 만든다.

내면에는 남녀관계의 비대칭성을 만들어 낸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모성 본능이 있다는 인식은 남성으로 하여금 부담없이 여성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남녀관계의 기반은 모자관계의 연장이 된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독립적인 생산수단이 없는 여성은 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고 성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과 봉사로서 숭배하게 된다. 이런 어머니를 경험한 남성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성의 전형으로 알고, 같은 유형의 여성을 추구하므로서 남녀관계는 불건강하게 형성된다. Dinnerstein도 남녀관계의 불평등과 갈등을 모성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이 모성을 독점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람에서의 여성의 독점이 남성 지배의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기의 유아의 개념수준에서 이해되어진 어머니인 여성의 존재는 어느 경우에는 자신의 생리적인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는 여신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불쾌감, 분노, 좌절감의 대상이다. 즉 유아가 경험하는 최초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강렬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또 한편으로는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럽고, 통제와 예측의 범주를 초월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 여성에 대한 복

잡한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유아기의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성인 남성의 여성관계에 작용하여 남성들은 지나칠 정도로 여성을 지배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성장한 다음 모성과업을 통해서 어린시기에 가졌던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좌절감, 분노, 불쾌감은 어머니의 실수나, 책임이 아닌 인간적인 조건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Dinnerstein은 남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이 모성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공유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므로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비난이나 분노를 남성과 배분하고, 남성도 어린시절의 복잡한 감정이 인간적인 한계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므로서 남성의 여성지배를 종결하여 인과의 죄사슬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여성의 모성본능의 이해(모성 독점)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어린이, 사회에 부정적이다. 여성은 그들의 삶이 가정에 제한되고, 남성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억압의 대상이 되는 점, 남성은 여성의 지배자로서, 또는 획일적인 남성다움을 요구하는 외부세계에서 점점 비인간화 되는 점, 어린이는 그들의 미래에 어른들의 같은 고통을 복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도 그 구성원이 행복하지 못할때 건강할 수가 없다.

모성과업은 역사의 후손을 길러내는 중대한 과업이다. 개인적인 수준의 것이 아닌 국가의 사업이어야 한다. N. Chodrow도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남, 녀가 자녀양육을 공유해야만 인격구조 형성과정을 통하여 보다 균

형있는 인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제는 모성의 특권을 여성, 남성, 사회가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호 필자의 원고중 19페이지의 열번째줄 "서양철학의...점이 없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양철학의 전통에서는 여성교육 문제가 하나의 논쟁거리였지만 남성이 지배하기에 편한 여성을 만들어내는 교육방향이 우세하였다. 예를 들면, 한 시대의 진보적인 사상가로서 정부, 종교, 교육에 관하여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루소도 여성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그의 여성관과 여성교육의 지침은 어떤 보수주의적인 남성과도 전혀 다른 점이 없었다."

여성의 전화 10주년 기념식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7월15일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아내 구타 수기집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기념식은 여성의 전화 10년 역사를 소개하는 연극 공연과 공로패 수여 등으로 어졌다. 때맞는 아내 수기집에는 공모에 응모한 총 43편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지윤자 씨의 "아 눈부신 해살처럼" 등 당선작 11편이 수록됐다.

일본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운동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7월15일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아시아국가들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경제적 힘을 이용해 국제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고 앞으로 유엔 인권소위원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신한국과 여성정책' 세미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소장 주준희)는 지난 8월 14일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에서 '신한국과 여성정책'을 주제로 한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한국의 개혁과 여성정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맡은 백영옥 박사(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는 여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개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천문연맹 금성 분화구에 한국여성 새 이름 채택

우리나라 여성이름인 '황진이'와 '신사임당'이 최근 금성의 분화구 이름으로 세계 천문연맹에 의해 공식 채택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화제.

이같은 사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대전 대덕 연구단지) 김봉규 연구원에 의해 처음 확인됐다.

금성분화구에 새 이름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세계천문연맹 산하의 지형명명위원회「노넨크스트그룹」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여성의 이름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써 태양계 천체에 붙여진 한국 관련 이름은 수성 분화구의 '윤선도'와 '정철', 화성분화구에 '나주', '장성', '전주' 등 10개로 늘어났다.

장충동에「여성평화의 집」 마련

재정상태가 불안해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난한 여성단체들이 한 건물에 모여 살게 됐다.

여성민우회, 기독교여민회, 여신학자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여성교회, 아세아 여성신학교육원,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등 9개 단체는 장충동에 대지 2백8평, 건물 88평의 공동건물을 마련했다. 「여성평화의 집」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건물은 독일 개신교 개발국(EZE)이 건물대입비 9억원의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입주단체들이 부담했다.

성폭력 위기센터 건립 기금 1억원,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전달

성폭력위기센터 설립위원회(공동대표 문국진, 조영환, 이계경, 최영애) 문국진 대표는 7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부터 여성신문사가 주축이 돼 모금해온 설립기금 1억여원을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기원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성폭력 위기센터는 앞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여 운영하게 되며 오는 9월중 개설했을 예정이다.

전문직업여성클럽 전회장 홍연숙씨, 세계연맹 부회장으로 당선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회장

여·성·계·동·향

박영혜) 전회장 홍연숙씨가 7월초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1차 전문직업 여성 세계대회에서 아시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제2부회장에 당선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생리휴가 폐지 반대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숙 등)은 7월 27일 "노동부가 생리휴가 폐지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생리휴가는 생리시 직업 장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절로부터 모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리휴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일은행 첫 여성지점장에 채춘자 씨

한일은행이 창립61년만에 조흥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두번째로 여성지점장을 냈다. 한일은행은 8월 5일 인사발령을 통해 서울 신원아파트 출장소장으로 재직중인 채춘자씨(52)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지점장으로 승진 임명한 것.

채 지점장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61년 입사한 지 32년만에 지점장이 됐다.

교회여성 연합, 반핵평화인물 선정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김희원)

은 제2회 반핵평화인물로 김분순(65, 경남 합천)씨를 선정했다. 김씨는 45년 8월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피해자로 70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원폭 피해자협회 대구 경북 지부를 창설하는 등 피폭자들의 보호에 앞장서 왔다.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여성학 개론서 「여성과 한국사회」 펴내

여성한국사회연구회(회장 이효재)

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살핀 여성학 개론서, 「여성과 한국사회」를 펴냈다. 여성과 사회, 여성의 사회학, 가족, 일, 성, 정책, 사회운동 등 7부 15개장으로 구성됐으며 각장마다 생각해볼 문제를 덧붙여 두었다. 필자는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광자, 강득희, 양득남, 김미숙 등 15명의 여성학자들.

김효선 (여성신문 기자)

▶ 협의회 소식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연사·프로그램위원 연석회의

오는 9월 23일 유관순기념관에서 있을 제30회 전국여성대회를 앞두고 본회는 지난 7월 21일 연사·프로그램위원 연석회의를 가졌다.

김경오 회장과 박영혜 전국여성대회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장 및 주제·발제 강연을 맡게 된 네명의 연사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류태영 건국대 부총장, 이옥주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이연숙 본회 부회장 그리고 박정호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연사 및 위원 소개, 대회 일정 소개에 이어 주제선정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었다.

이번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는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1994년)를 맞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신한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의 지도자의 건전한 가정생활 영위와 축첩·도덕성 문제를 다루어 보자는 의도에서 이날 토론 끝에 주제를 '2000년대의 가정'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소재목을 붙여 보완키로 했다.

또한 발제강연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사들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민족정신을 창출하는 가정' '미래사회와 가정의 기능' '신한국의 가정'으로 구분 분담키로 했다.

우·리·들·의·광·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달걀, 닭고기요리 강습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3일간 대한양계협회 주최로 서울 한국종합전시장(KOEX) 3층 대서양관에서 개최된 '93한국양계박람회' 홍보행사를 담당했다.

이번 홍보행사는 달걀, 닭고기요리강습회로 새롭고 다양한 달걀과 닭고기요리 소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계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양계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전행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참가비용은 무료였다.

- 내용=①달걀과 닭고기요리강습회
- ②오므렛 실연회
- ③달걀먹기대회
- ④양계 퀴즈대회

이중 오므렛 실연회는 참관자 중 신청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요리하여 시식했으며, 달걀먹기대회와 양계퀴즈대회에서는 소정의 상품도 시상했다.

또한 주행사인 전시행사에는 가금류알 전시, 병아리 부화과정 전시, 한국양계발달사등이 전시되어 방학중인 아동들의 학습견학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제21차 세계대회 참석

본연맹은 7월4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1차 세계대회에 박영혜 회장을 비롯하여 39명의 한국회원이 참석하였다.

B.P.W.세계연맹의 발전을 주제로 하여 열린 이 대회에서는 여성의 기업참여, 환경, 커뮤니케이션, 장기발전 계획 및 차세대여성 전문직 프로그램에 관한 워크샵이 있었다. 연맹임원선거에서는 홍연숙 한국연맹 전회장이

세계연맹 제2부회장에 선출되었고, 박영혜 현회장이 공보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YCW(Young Career Women)프로그램에 한태숙회원이 초청되어 많은 활약을 하였다.

나고야대회 직후 한국여성개발원과 UN IFEM(유엔여성개발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경세계여성대회준비를 위한 NGO세미나에 연맹대표로 박영혜회장과 홍연숙 전회장이 참가하였다.

임원인준식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은 지난 8월 16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관심있는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인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초대연맹회장인 김현자를 비롯 정광모, 김옥렬, 이재순, 송화섭, 백정란 등 역대 회장단이 모두 참석하였고, 한호선 농협중앙회장의 축사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의 한국여성단체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임원인준식이 되었다. 청주, 마산, 대구, 포항, 광주를 비롯한 지방회원들과 제21차 나고야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의 참여도 새로운 임원진의 출발을 더욱 힘차게 했다.

또한 임원인준식과 더불어 세계연맹 제2부회장에 선출된 홍연숙 직전회장과 세계연맹 공보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박영혜 현회장에 대한 당선축하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그밖에 국제연맹의 환경위원으로 위촉된 조금자 회원과 YCW(Young Career Women)위원회의 아태지역 위원으로 위촉된 한태숙 회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세계속의 BPW 한국연맹으로 그 위상을 확립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영양사회

병원분과 워크숍 개최

본회 병원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6일에서 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 4층 국제회의장에서 「비만치료를 위한 영양관리」 및 「급식관리 전산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첫째날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비만분야에 대한 영양사들의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비만치료를 위한 영양관리」에 대한 워크숍으로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 1은 「비만관리를 위한 영양상태 평가」(안홍석: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주제발표 2는 「비만치료를 위한 식사요법」(이종호: 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비만, 그 심리적인 치료 측면에 대하여」(한오수: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울산의대 교수)등의 강의가 있었다. 주제발표 3은 영양상담의 실제적인 면으로서 「영양상담시 대화의 기술적인 면에 대하여」(이경혜: 연대 식품영양과학연구소 연구원), 「영양상담에서의 교육매체 사용」(조윤옥: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점심식사후 이어진 주제발표 4는 「비만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실제」(이송미: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사), 「비만의 적절한 체중유지를 위한 장기간 관리방법」(정구명: 메덱스클리닉 영양과장), 「비만의 운동요법」(황수관: 연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에 대해 발표되었으며, 주제발표 5로는 허계영(영동세브란스병원)영양사의 '93 대한영양사회 대국민행사를 위한 소아비만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둘째날은 영양사 업무효율화를 위한 「급식관리 전산화」에 관한 워크숍으로 오전에는 「영양과 급식 관리 업무현황과 전산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이영희: 서울대학교병원 영양과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전산화를 위한 급식자료관리의 효율적 방안」 및 「급식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송미(영동세브란스병원)·김은미(고려병원) 영양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위탁급식에 대한 특강으로 「최근 위탁급식경영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김경주(고대의료원 안암병원) 영양과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위탁급식의 현황 및 소개의 시간에는 서울케이티링서비스(주)와 (주)씨·엠 개발의 회사소개가 있었다.

'93년 지도자 연수교육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본회 및 지부 임직원의 지도자로서의 능력개발과 본회의 지부 운영에 대한 전략개발 및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93년도 지도자 연수교육이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본회 및 지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원당에 위치한 농협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제7회 청소년 수련회

안목단회장은 부녀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상호협동정신을 고취시키고, 단체생활을 통한 긍정적 사고와 경험을 통한 적극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키 위해 매년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올해로 제7회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하여 7월 23~24일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 남한강 종합 수련원에서 부녀복지시설 청소년 및 지도교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성황리에 치루었다.

우정의 캠프를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아름다운 추억과 많은 경험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촛불의식에서는 국가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자라온 지난날을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2,000년대의 신한국과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들으며 미래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다시금

다지며, 환경의 중요성과 고마움,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1박2일의 아쉬움을 나누며 앞으로 편지교환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동장 탄생, 취임축하연

전문직간호사가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운 행정적인 동장으로 취임, 간호계의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신임동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유성자, 김종숙, 조성희 회원은 모두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서울시 및 성남시 가족보건계장직을 역임,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새로이 탄생된 도봉구 쌍문3동장 유성자, 노원구 중계3동장 김종숙, 성남시 분당구 초림동장 조성희 회원의 취임 축하연(27일)이 열린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는 2백여명의 보건간호 관련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고, 박노예 보건간호사회장은 새로운 영역확보를 위해 개척해 나가는 세분 동장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냈으며, 대한간호협회 박정호회장은 여성행정력에 대한 재평가라고 지적하고, 간호정신에 입각하여 일선행정을 펼쳐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함과 동시에 앞으로 기초 광역의회의 등의 진출을 위한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새로이 취임하는 세명의 동장을 대표하여 유성자 동장은, 행정자로서, 간호의 근본정신인 사랑으로 새로운 결서를 만들어 나갈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축하연에서는 그동안 함께 했던 보건간호사회 회원들의 축하와 정성들여 마련한 기념품등이 증정되었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서울시 각구 회장단 교육과 월례회

본회에서는 지난 7월14~15일 부곡에 있는 일성콘도에서 서울시 각 구 회장단 교육 및 월례회를 가졌다.

우중이라 열려도 했었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치 준비된 날처럼 화창하여 참석한 이들의 마음까지 밝게 하였다.

문회장은 각 구에서 모인 임원들을 환영하였고 활동 보고를 들은 후 임원들을 격려하면서 본회 운동에 더욱더 앞장서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강의시간에는 사회와 국제흐름에서 나타나는 위기성과 한계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있는

청소년탈선과 성폭력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사랑과 우리사상으로 하나되고 참부모의 마음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청산하고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장은 아울러 매달 실시하는 임원 강사교육에 참여하여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장단교육은 각 구 회장단이 한방에서 지내면서 해묵은 회포도 풀고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단합의 장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의의를 갖는다.

임원 강사교육

본회에서는 지난 7월21일 이천 설봉온천에서 임원강사교육과 아울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문화장은 참석한 이들을 환영하였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문화장은 강의를 통해 국가차원과 개인차원의 두가지로 통일방안을 설명하면서 국가차원에서는 핵문제, 천만이 산가족문제, 남북경제교류와 협력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개인차원에서는 가치관개혁, 의식개혁을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모두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의 이중목적을 지닌 존재임을 말하면서 개인의 개체목적은 이루기위해 정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목적이 보장된 가운데 개체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곧 도래할 남북통일을 준비하자고 당부하였다.

한국퇴역여군회

창립제1주년기념총회

한국퇴역여군회 회원들은 지난 7월23일 상오11시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개최된 창립1주년 기념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여사의 축전과 권영자 정무제2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각계 여성계 내외귀빈



그리고 회원 220여명이 참석하여 권영자 정무제2장관 격려사와 김경오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참하여 나라와 지역사회의 그리고 가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통한 조직활성화로 퇴역여군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중국안보 시찰

한국퇴역여군회 임원 및 회원12명은 지난 6월 27일~7월 6일까지(9박10일) 천진, 북경, 길림, 이도백하, 백두산, 장춘, 서안, 계림, 상해임시정부청사를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특히 백두산 천지까지 등정하여 조국분단의 쓰라린 모습을 보고 조국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염원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부부부서서서회회감조제출기국사	회회회기기계계직관리위원장공보위원장연구위원회제관계위원장무총	장장장이사사사사사사장장장장장장장	김이정김강최김이양이하조박박김	경연연옥인회경정요은옥중정영금	오숙심한자순애란식숙기순호혜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909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아파트 805 종로구 광화동 260 세련미용실 강남구 신사동 615-4 (주)인테크 도봉구 수유동 510-20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대구시 북구 노원2가 313-12 종로 명동2가 3-6 마살미용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5-1305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8-119 용산구 청파2동 숙영여대 불문과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509동 1105호	584-1426 649-5353 783-2924 032-93-3493 503-4691 796-7557 732-9585 511-0031 352-8607 561-2630 053-32-4472 776-2839 562-6416 572-4308 710-9323 471-7885
------------------	---------------------------------	-------------------	-----------------	-----------------	-----------------	--	--

회 원 단 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박정호	종로 명동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한말숙	도봉구 방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종로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박정자	종로 명동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정정순	종로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박영혜	강남구 압구정동 408 조오련수영교실B/D 2층	516-9608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목단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합동협회	정숙자	종로 명동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중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태인	성북구 종로4동 64-30 24동1번	457-7961
한국우먼스클럽	김은방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이연옥	서대문구 효자동 265-90	303-2112
국제존타서울클럽	최정연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김이준	종로구 명동동 537-9	352-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정민정	서초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음협회	김조상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4층	631-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김문경	종로구 창신동 286	733-498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이정숙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빌딩 501호	549-5181
대한영양사회	김정영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정경이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통일여성안보회	정영수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대한치과위생사회	문정영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정숙	용산구 한강로 3가 40-316	790-5200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수	서초구 양재동 342-5 협진빌딩 201호	571-2999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윤수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23-1250

편집후기

본회가 실시한 중고생활용품 교환시장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소비자들의 재활용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환경문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불감증의 시대여서 인가? 아니면 그것에 관심을 돌릴 새도 없이 터지는 대형사건(?)을 때문인가?

월간여성 ● 1993년 8월호 통권310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김경호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진기자 : 현라기희

발행일자 : 1993년 8월 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조장순

위원 : 김효자 / 문현경 / 박금옥 /

서은경 / 신동식 / 오종지 / 박영애

담당 :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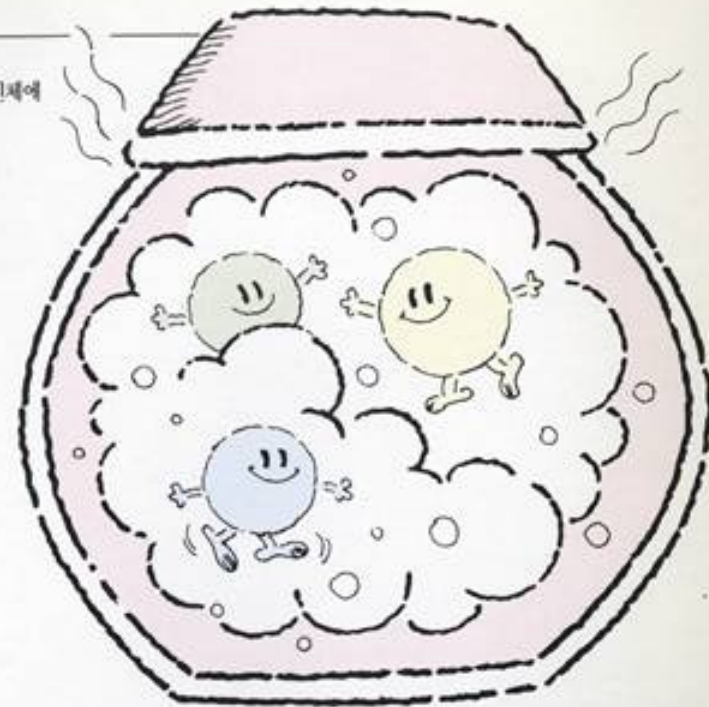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알아봅시다.”

발효조미료

발효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해서 인체에 유익한 천연성분을 생성하는 것



발효식품의 예

간장, 된장, 김치, 젓갈, 식혜, 식초, 요구르트, 치즈, 버터, 빵, 주류 등

발효조미료의 사용방법

발효조미료 미원은 냉수나 온수에 모두 잘 용해되고 가열에도 안정하므로, 언제 넣어도 좋으나 일반적으로 불고기, 양념구이 등은 익히기 전에, 국이나 탕 등은 끓기 직전이나 끓은 후 넣는 게 좋다.



발효조미료의 성분

발효로 만들어지는 글루타민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아미노산 중에서 유일하게 맛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미료의 주성분으로써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 글루타민산은 모유나 우유, 치즈, 쌀, 콩, 쇠고기, 토마토 등 우리가 늘 섭취하는 모든 천연식품중에 풍부히 들어 있으며, 인체 내에서도 스스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성분이다.

발효조미료의 제조방법



사탕수수에서 원당을 생산하여 물과 영양분을 배합하고 미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뒤, 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시키면 글루타민산이 만들어진다. 이 글루타민산에 나트륨을 결합시켜서 얻어낸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바로 감칠맛을 내는 발효조미료인 것이다.

인체 안전성에 대한 주요 국가의 평가

유엔의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 유럽공동체의 과학위원회 등은 각각 1987년과 1990년에 발효조미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절대 안전하며, 일일섭취 허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미국의 FDA도 연방 규격집의 안전한 식품 리스트에 수록하고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부도 1986년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임을 공식 발표하는 등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안전성을 인정하고, 사용량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 등 주요기관의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MSG는 인체에 지극히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다.
- 생후 12주 미만의 영유아들도 성인과 똑같이 MSG를 대량 섭취할 수 있다.
- MSG에 대한 더 이상의 안전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MSG : 글루타민산나트륨=발효조미료)